

碩 士 學 位 論 文

영어교육을 위한 영문학텍스트의 효용론

- 영시교육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允 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 語 教 育 專 攻

趙 元 吉

2005年 8月

영어교육을 위한 영문학텍스트의 효용론

- 영시 교육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允 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趙 元 吉

趙元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國文 抄錄>

영어교육을 위한 영문학텍스트의 효용론

- 영시 교육을 중심으로 -

趙元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允德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행평가의 도입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의 장려 등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진 여건 속에서 영시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전제 아래, 영어교육을 위해서 영시 텍스트가 효용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필자는 우선 영시 텍스트가 가지는 두 가지 특성 즉 언어교육적 특성으로서의 영시와 정서교육적 특성으로서의 영시를 살펴보았다. 개별 언어 체계로서의 영시는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학습자료라는 점을 정서적 소통체계로서의 영시는 심미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좋은 학습자료라는 면을 살펴보려고 했다. 다음으로 교육 자료로서의 영시의 효용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시교육에 대한 언어교육 자료로서의 적합성과 정서교육 자료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적합성을 토대로 영시 텍스트의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실제 영시 텍스트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자료가 될 가능성을 영역별로 살펴보았으며, 정서교육에 적합한 주제에 알맞은 영시 텍스트를 통하여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교육적 효용성과 다양한 실제적 수업 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의 영시 수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즉 영시를 활용한 수업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이고 설명적인 문법 번역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생 중심의 창의적인 토론 수업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이해력 신장에 기여하는 정서발달에도 이바지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암기 위주 학습과 온갖 사회악으로 질식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시를 통한 교육은 정서 순환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열성적인 교사, 적절한 영시 교재, 그리고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영어 교실에서 상호 협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영시를 통한 영어교육이라는 목표도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어 지도를 위해 영시가 필요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영시지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특성	5
1. 언어교육적 측면	5
2. 정서교육적 측면	10
III. 교육자료로서의 영시의 효용성	13
1. 언어교육 자료	13
2. 정서교육 자료	23
IV.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방안	31
1. 언어교육의 활용	32
2. 정서교육의 활용	43
V. 결론	55
참고문헌	59
Abstract	62

I. 서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수단이며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 정책도 바뀌게 되고, 학교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교육이론과 방법에서의 변화는 당연시 되고,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영어교육에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연구의 대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언어교육의 자원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문학의 요소들이 실용 영어를 중시하는 영어교육의 경향과 어느 정도 부합됨으로써 문학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어지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이 새로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¹⁾ 2000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1997)을 살펴보면, 문화가 언어재료로서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실생활의 문화와 관련 있는 문학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들이 실용 영어를 중시하는 영어학습 지도의 경향과 부합됨으로써, 영어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이 새로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 영상 문화의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은 저급 문화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경향을 여과 없이 받아 들여 모방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문학작품을 읽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육 현장에 있어 문학 텍스트의 활용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삶과 밀착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 텍

1)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부고시 제1997-15호[별책14](1997), p. 29.

스트를 활용하여 가르친다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요즘의 언어 교육, 특히 영어교육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언어 교육에 보다 강한 동기와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시 텍스트의 경우 한 시간 수업 분량에 적합하고 화자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어를 통하여, 음악적 리듬감도 함께 느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또한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교사가 주인공이 되어 학생들의 두뇌 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흐름을 이끌어 주는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 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찾고 발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구나 인간성 상실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영시 텍스트는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기 위한 정서 교육의 도구이자 필수적인 학습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된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 그 후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만남, 각 계층 사이의 다양한 인간관계, 각기 연령이 다른 사람들의 판이한 사고와 다양한 문화적 접촉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부딪히게 될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자극 받는다. 학생들은 문학 텍스트 속의 인물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시켜 감정 이입을 하게 되고 문학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혹은 읽고 난 후에 “내가 만약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의 체계적인 정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본래의 교육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인간의 사고 속에 내재화시킴으로서 인격 교육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 그 중에서도 영시가 영어교육에 있어서 어떤 효용성을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영어교육에서 영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국어 교육에서도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재료란 가치 면에서, 시대적 상황 및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만 인식된 나머지, 영시는 교과서의 배경 페이지 중 하나로 전략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어교육 본래의 중요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 영시 텍스트의 활용이 영어라는 언어 교육적 측면이나 정서 교육적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영시가 언어교육의 재료인지, 아니면 정서교육의 재료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영시 교육의 목적이 영어라는 개별언어를 획득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영시에 포함되어 있는 정서를 획득하는 것이 영시교육의 목적인가 하는 논란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영시 텍스트는 영어라는 개별언어의 문법체계를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정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시 텍스트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용성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시교육은 개별언어의 획득을 위한 언어 교육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시교육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II장에서는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측면 즉 언어 교육적 측면으로서의 영시와 정서교육적 측면으로서의 영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시 텍스트는 개별언어적 측면에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자료인 동시에, 정서교육적 측면에서는 심미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좋은 학습자료임을 밝히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영시교육에 대한 언어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과 정서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효용성을 토대로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 및 장점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접근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그

방법은 실제 영시 텍스트를 통하여 영역별로 언어교육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적합한 주제에 알맞은 영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정서교육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특성

1. 언어교육적 측면

학생들이 교과서로 영어를 배울 때 지루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과서의 언어 자료가 재미없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언어 자료가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장들이 너무 많고, 제시된 상황들도 인위적인 것이 많다. 이러한 요소가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킨다. 이에 비해 영시 텍스트는 이러한 인위적 언어자료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 사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이다. 거기에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즉 현실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설렘과 안타까움, 현실을 통해 겪는 괴로움과 고뇌가 들어 있다. 영시 텍스트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체험과 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시의 언어는 살아 있다. 학생들은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말하는 텍스트에 훨씬 잘 반응하며, 훨씬 많은 흥미를 느낀다. 그런데 영시에서 활용되는 언어는 학습 수준에 맞는 언어적 통제가 결여돼 있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조금만 유의하여 자료를 선택하면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²⁾

영시 텍스트의 장점은 그것이 생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이다. 이 관심과 흥미의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학습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으로 학습의 목표는 절반쯤 달성한 셈이 된다. 향유의 동기가 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관

2) 송무 외, 『시적 텍스트를 이용한 영어교육』 (서울: 한신문화사, 1998), p. 51.

심 의 강도에 비례하여 자신이 읽은 내용을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한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There is a book on the desk.)” 라는 문장과 “옛날 옛적에 애너벨 리라는 이름의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retty girl named Annabel Lee.)”³⁾라는 문장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는지는 분명해진다.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텍스트가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적 텍스트를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쓰는 방법, 다른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면, 그리고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 가득 찬 텍스트라고 말한다면 시적 텍스트의 장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⁴⁾

영시 텍스트가 갖는 재미의 요소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읽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시 텍스트의 형식이 불러일으키는 생리적 쾌감과 내용이 일으키는 관심이 그런 작용을 한다. 시는 현실의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다양한 일과 체험들을 다루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 충동, 꿈, 이상 등 원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일상적 감각과 인식을 깨뜨리는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욕망과 체험을 시와 쉽게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자신의 욕망이며 체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적 텍스트와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이 직면한 암시를 얻고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또한 시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낯선 체험도 가능케 한다. 그 경험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도 그러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체험의 정체를 깨닫고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과 삶을 조정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과 깨달음이 주는 감동은 그 텍스트를 오래 기억하게 한다.

시 텍스트가 가진 특유한 자질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창조

3) Nina Baym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Vol. 2,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9), p. 1375.

4) 송무 외, p. 51.

적인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높아진다. 이러한 상태가 마련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 활동에 참여시키기가 쉬워진다. 충분히 동기화된 학생들은 교사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싶어 한다. 또한 텍스트에서 다루어진 소재와 주제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체험과 삶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발표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시 텍스트는 삶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나 지혜를 제시하는 것들이 많아 교사와 학생이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다른 시간과는 달리 이 시간에는 주어진 정답이 없다. 그리고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두려움 없이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활발한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시 텍스트는 소리와 의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요소의 상관관계를 다양하게 이용한 언어 표현 양식이다. 따라서 언어의 네 기능을 골고루 훈련시키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우선 발음·리듬·억양 훈련에 유용하다. 시적 텍스트는 매우 잘 짜여진 소리의 조직, 곧 다양한 두운·각운 체계와 리듬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적 텍스트를 많이 듣고 많이 소리 내어 읽으면 영어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힐 수 있게 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현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시 텍스트는 이상적인 자료이다. 시 텍스트는 리듬과 가락을 갖추고 있어 외우기 쉽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억된 내용을 끄집어내어 사용하기에 좋다. 또한 참신하고 세련된 규범적 표현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말하기와 쓰기 등의 표현 활동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글을 쓰고 짓는 데 좋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해 훈련에도 적합하다. 시 텍스트는 복합적인 뜻을 함축하는 다채로운 어법과 수사법을 구사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석 능력을 길러 준다. 이처럼 시 텍스트는 각 기능을 훈련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는 집단 활동이나 역할 놀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시 텍스트는 이야기의 특질이나 드라마의 특질을 가진 것이 많아 집단 활동이나 역할극을 하기에 편리하며, 각운·연 등의 형

식적인 정형성을 이용하여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집단 활동을 고안하기에 유리하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언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가 규정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시의 언어는 그것이 생산된 문화적 바탕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언어 구조물이므로 거기에는 한 문화공동체의 감성, 취향, 지혜,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 체험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시 텍스트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학텍스트를 읽는 일은 그 작품 속에 표현된 사건과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므로 학습자가 받는 가장 큰 이익은 문학적 체험이다. 문학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독해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한 문학텍스트가 갖는 문화적 가정을 인식하고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문학적 체험이다.⁵⁾ 우리는 여기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이기도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살아있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수준 높은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길을 묻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소득 일뿐이다. 영어로 길을 묻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것처럼 엄청난 물적·정신적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에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투자를 하는 것은 외국의 우수한 문화를 배워 오고,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며, 국제 무역을 하고, 국제 정치 외교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주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영어를 하는 것이지 “쇼핑”하고 “관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영어

5) 배두분,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1995), p. 283.

를 하는 목적 가운데는 영어권 문화의 중요한 일부인 영문학을 읽고 향유하려는 목적도 들어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육의 원래 목적은 문학 읽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영문학을 읽는 것은 영어 학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의 일부인 것이다. 그런데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어 시간에 문학 텍스트는 피하여야 하며 우체국 가는 길을 묻는 방법만 가르치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시 텍스트는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는 영시 텍스트가 첫째 살아있는 언어이며, 둘째 향유의 대상으로 여겨 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셋째 동기를 부여하고 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하며, 넷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언어 감각을 세련시키며 언어의 기능 훈련에도 적합하다는 특성이 있다.



2. 정서교육적 측면

시에에는 음악적 요소가 들어 있어 재미있다. 음악은 우리의 생활과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공기의 진동 현상이다. 그것은 일정한 규칙을 갖는 공기의 진동으로 그 파장이 우리 생체활동의 리듬, 예컨대 심장 박동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면서 기분 좋은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 기분 좋은 생리 심리학적 반응을 우리는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으로 느낀다. 사람이외의 생명체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음악을 듣고 자란 젓소가 젓을 많이 내고, 음악을 듣고 자란 나무가 열매가 충실하다는 사례 보고가 신문에 종종 보도된다. 음악, 곧 기분 좋은 소리에 의한 효과가 우리의 삶의 활동 능력을 생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일례로 “구구단 외우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지만 대개는 평생토록 잊지 않는다. 구구단 그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흥미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외울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구단의 규칙적인 박자와 리듬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 외웠던 “태정대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이라는 구절은 임금 이름들의 첫 자만 따서 연결시킨 것이다. 우리가 암호화도 같은 이 무의미한 어구들을 외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4·3조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알파벳 노래도 똑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임금 이름이나, 영어 알파벳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리듬이나 가락을 붙여 외우거나 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있게 느껴지고 거의 평생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음악이 지니는 대단한 효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 음악, 곧 노래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 동요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교가에서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저마다 수백 곡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영시 또는 시적 텍스트는 바로 노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와 노래는 모두 규칙적인 소

리 조직, 그것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의미 구조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같다. 노래는 “시”의 대표적인 한 장르이다. 시적 텍스트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노래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밑에 두고 몰래 읽었던 소설책의 재미를 기억할 것이다. 또는 꽃 잎사귀를 따서 갈피에 끼워둔 시집을 애지중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가 표현하는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나 정형화된 세계를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학은 자유로운 세계이다. 시와 문학의 세계는 꿈과 상상의 세계, 사랑과 모험의 세계이며 환상의 세계이다. 시와 문학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거기에서 우리는 규칙과 법칙, 되풀이되는 훈련으로부터 벗어난다. 문학의 세계에는 실수도 있고 일탈도 있다. 시와 문학은 실제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꿈과 모험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가끔 설레게 한다.

시의 언어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일상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에 충격을 준다.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이다. 수수께끼는 교과서의 규범에서 벗어난 어법과 논리로 우리를 당황케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지를 조롱한다. 가령 “앞으면 높아지고 서면 낮아지는 것은?”,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가는 것은?”이라고 묻는다면 논리적 과학적 법칙의 세계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질문에 답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보가 된다. 수수께끼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합리적 정신은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우리가 수궁할 수밖에 없는 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다시 보게 된다. 시의 비유도 일종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에서 느끼는 재미는 본질적으로 수수께끼에서 느끼는 재미와 유사하다.

시는 우리로 하여금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들여다보게 하고, 붉은 노을에 목메이게 하기도 하는 어떤 것이다. 시는 때로 달빛 아래 검푸르게 빛나는 나뭇잎이기도 하고, 그 주위의 이국적 향기이기도 하다. 풀 싹을 스치는 옷자락 소리가

기도 하고, 불 켜진 창문을 스치는 그녀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잠들지 못해 서성이던 밤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지붕에서 가까운, 아니 하늘에서 가까운 다락방 같은 것이기도 하다. 창문이 있고, 그 창문으로는 풀밭이 보이고, 그녀머로는 숲이 보이고, 풀밭으로 난 작은 길이 보인다. 아니면 어두운 골목길과 낮은 지붕들이 보인다. 창문 한 귀퉁이로 한 조각 밤하늘이 보이고, 그곳엔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다. 그 아래로는 흰 보안등이 보이고, 때로 술 취한 사람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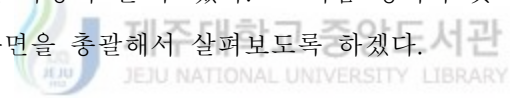
시는 때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때로 사랑하던 이들의 곁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낯선 도시, 낯선 불빛 아래 내리게 한다. 시는 우리를 방황하게 한다. 방황하게 하되, 그 방황의 외로움이 슬픈 것만은 아니게, 슬픔이라 하더라도 어쩐지 빠져들고 싶은 감미로움을 가진,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으로 벽차오르는 슬픔이게 하는 어떤 것이다. 시란 그런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이다. 시는 세상의 작은 것들을 다시 보게 하고, 때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슬픔을 느끼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 방황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우리 젊은 시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시 텍스트가 정서적 측면에서는 리듬을 통한 음악성이 있어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과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을 확장시켜 주며,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출구 역할을 하며, 주제와 메시지를 통하여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교육자료로서의 영시의 효용성

영시 텍스트의 효용론을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선 영시도 문학의 한 분야이므로 먼저 문학이 언어 교육 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러 견해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반대로 그러한 견해들이 적합하다는 관점들을 살펴보겠다. 이같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면, 부적합성의 반대논거로 작용하고 있는 적합성의 근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그런 반대 논거를 참고로 하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영시를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혹은 배제시켜야 할 점등을 인식함으로써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충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영시가 갖고 있는 효용성을 언어 및 정서 교육적 측면을 총괄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언어교육 자료

영시 자료 활용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학생들이 영시를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영시가 소수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수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는 어렵다. 둘째, 교사들에게도 영시는 어렵게 느껴진다. 또 교사들이라고 해서 영시를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교수법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 텍스트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 할 수 없다. 셋째, 영시는 영어교육을 위해 창작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 학습 단계에 맞게 어휘 통제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 문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넷째, 영어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면 영시 자료 말고도 다른 종류의 효과적인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영

시 자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학년에서 약간씩 사용할 수 있을 뿐 저학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다섯째, 교과서에 영시가 학습자료로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수업 시간에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다.

이 의견들을 검토해 보면 교과서에 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견해만을 빼놓고는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는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시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교육 자료로서의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1960년대에 나왔던 토핑의 의견에서 크게 멀지 않다. 그는 “우리가 훌륭한 문학이라고 정의하는 언어는 너무 복잡하고 비밀상적이다”고 말하면서, 문학은 읽기 능력에만 도움이 될 뿐, 듣기, 말하기, 쓰기 기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표준 구문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문학 교육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⁶⁾. 더 나아가 그는 문학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아주 우수한 어학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시가 유용한 영어교육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여기는 시에 쓰인 특이한 문체 때문이다. 이러한 시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시가 영어교육 재료로서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정형화되고 단순한 문장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시에서와 같이 다소 복잡한 문장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문체상의 특이한 점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되어 시를 통한 영어교육을 아예 포기하게 했던 것이다. 각각의 시에는 나름대로의 특색과 색깔을 지니게 되는데, 우리나라 영어교육 교실에서는 문체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문장의 해석에만 치중해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그것들의 다양한 문체 속에 담긴 의미(meaning)를 파악하기보다는 정형화된 영어 텍스트의 형식(form)이나 정보(information) 제공에만 치중한 교육을 받아 왔다.

시가 영어교육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아마

6) D. M. Topping, “Linguistics or Literature: An Approach to Language,” *TESOL Quarterly* 2(1968), pp. 95-99.

시에 쓰인 언어들이 직접적이고, 산만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일상 언어 보다 통일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함축적 언어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어와 일상생활 용어가 상당히 다르므로, 시를 영어교육 재료로서 학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은 교육현장의 교사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교실에서의 문학 텍스트 사용 즉 영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오해하거나 미처 극복하지 못한 논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학 텍스트에 흔히 볼 수 있는 언어 규칙에서 일탈된 과격적 표현들이 학습자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토픽의 주장은 오히려 일탈된 표현들을 이용하여, 표준문법과의 비교와 상이점 파악에 초점을 두는 학습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일반적인 어법의 습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들의 언어 인식능력을 확장,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문학 텍스트 찬성론자들 어느 누구도 문학의 도입이 어학교수법으로서 우월하다거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변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어느 종류의 학습자료와 동등한 취급을 해달라는 입장일 뿐이다.⁷⁾

이러한 입장에서 문학작품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휘들의 다양한 의미들, 기계적으로 배워왔던 문법들의 실제적인 활용은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언어능력의 하나이다. 포비(John F. Povey)는 문학작품은 광범위하고 섬세한 어휘의 사용과 복잡하고 정확한 통사구조가 학습자들의 언어지식을 넓혀주고, 언어기술(Language skills)을 향상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학생들을 위한 모델로서 정립될 수 있는 문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콜리와 슬레이터(J. Collie & S. Slater)는 문학작품이 언어학습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자료

7) 정윤범, 「영시를 통한 영어교육: 한국 중고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7), p. 11.

8) John F. Povey, "Literature in TESOL Program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TESOL Quarterly*, 1. 2(1972), p. 97.

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많은 상이한 언어학적 용법들과 형태, 글쓰기 양식의 규칙들에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⁹⁾

그러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료로서의 문학작품의 효용성에 대한 주장에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수준과 적절한 작품 선정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 학생의 언어능력 내지 유창성, 작품의 시대적 배경, 어휘의 난이도, 문학적 정교성, 교과와의 초점 등 많은 요소들을 적합하게 고려해야 의도하는 학습효과를 이룰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러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자료로 문학작품이 효용성을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신앙, 지적·감성적 취향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의식, 양태 등을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적 풍성함을 내포하는 것이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간접적으로나마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다.

외국어 교수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문학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현실에서 외국의 교육 목표가 단순히 언어 습득의 목표에 머무를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학을 통해서 폭넓은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년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 문화가 언어 재료의 요소로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7차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의 목표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9)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Ability in th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Cambridge: Cambridge UP, 1987), p. 4.

-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¹⁰⁾

이와 같이 언어 기능 면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연스러운 언어활동을 위하여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면을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둘째,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 셋째,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면 작품을 통해 그 문화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 교육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식 능력과 통찰력이 신장되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포비는 문학 지도의 일반 목적을 들어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한다.¹¹⁾ 첫째로 문학은 언어자료를 제공하고 어휘의 용법과 통사 구조 및 문체 등을 통하여 언어 지식을 확장시켜 주므로 문학을 공부하면 모든 언어 기능이 개발되며, 둘째로 문학은 언어 표현으로 명시된 그 목표 문화와 관련되므로 문학을 통하여 목표 문화와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 준다. 셋째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자아의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넷째는 훌륭한 작가의 표현법과 사상 등을 통하여 영어 학습자의 창조력이 개발될 수 있다.

최근까지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사용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우리의 사정과 같이 구어체 영어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있다. 문학 작품은,

10) 교육부,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1998)

11) Povey, p. 187.

목표 언어를 내재화하고 해석하기 위한 의미 있고 기억 가능한 정황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습득을 자극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작품 선택에 신중해야겠지만, 상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교실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약된 언어 입력을 보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실 내에서도, 토론이나 공동작업과 같은,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나누게 하는, 학습활동을 제고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에는 다층적인 의미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과제들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한층 증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인식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것도 문학 텍스트의 큰 장점이다. 언어를 가르치는 교실에서의 문학 텍스트 사용에 관한 쟁점 중의 하나가, 문학 언어는 통사론과 말의 배열(collocation), 그리고 심지어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규칙들을 깨트린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문학 작품을 다룰 때 그들을 그릇된 언어 사용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종종 우려한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고도의 언어사용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언어사용의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자극할 수 있다. 즉, 시 텍스트의 언어사용을 좀더 일반적인 용법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그 작품 속에 담긴 특정한 문체론적 효과를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이탈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숙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또한 모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을 때 감정적 또는 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속에 묘사된 다양한 형태의 삶과 자신을 동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삶을 수용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비록 상당한 언어적 장애가 있지만, 그저 해석에만 매달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선행 학습 장치를 마련하고, 알맞은 독서 방법에 의해 꾸준히 읽어 나간다면 언어적 장애문제는 의외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따라

12) 정윤범, p. 13.

서 작품을 읽는 가운데 커다란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언어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학습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문학 텍스트의 또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언제나 스스로 가설을 세워 보기도 하고 다양한 추론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한 관용구가 어느 때 가장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한 문법 규칙이 얼마만큼 일반화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이가 대화 중에 하는 말이 함축적으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 언어가 다층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떠한 단어가 고정된 사전적 정의를 뛰어 넘은 강한 비유적 의미를 펼 수 있다. 이 의미를 규명해 보는 일은, 학생들에게 텍스트 속의 증거에 근거한 그들 나름의 해석에 관해 토론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얻게 되는 이 유용한 해석 기술은, 학생들이 암시적이거나 언급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해석을 내려야 하는 다른 상황에도 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학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옹호하는 학자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더프(Alan Duff)와 말레이(Alan Maley)는 문학이 “매우 넓은 영역의 문체와 단어 사용역의 진정한 표본이며 수많은 수준의 난이도를 지닌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 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¹³⁾ 켈러(W. Köller)는 문학 텍스트가 사실 중심의 실용적 텍스트와 달라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대상이며 언어 가공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는 다른 읽을거리와는 달리 문학 텍스트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 논증하지 않고 작품에 포함된 주제에 합당한 질서와 구조, 즉, 플롯을 가지고 이 플롯으로 인해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하나의 긴밀성을 유지시키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읽고 난 후 독자에게 남는 복합적인 정신적 여운이 다른 읽을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¹⁴⁾

13) A. Duff & A. Maley, *The Inward Ear: 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P, 1994), p. 6.

14) W. Köller, *Eing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학생들은 들으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읽기를 통해서 쓰기를 배우며, 쓰기를 통해 읽기를 배운다. 이처럼 모든 언어 기능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제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야 한다. 굿만(Goodman)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구어와 문어의 상호작용과, 구어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문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⁵⁾ 하광호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언어가 감정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정에 닿기만 하면 평하고 터지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언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학 자료를 영어교육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¹⁶⁾ 따라서 정서 함양과 문화교육을 할 수 있고, 자료 자체가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 표현력을 기를 수 있으며, 흥미를 더해 주기만 한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해줄 수 있는 문학을 통한 영어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크다. 이경우도 그의 저서에서 어른은 물론이요 어린이도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항상 문학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연습지를 사용하는 것 보다 좋은 그림책을 사용한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⁷⁾ 또한 콜리와 슬레이터 역시 “언어 교육자들이 문학을 사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문학이 근본적인 인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광범위하면서 매우 다양한 문어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과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란 점이다.” 라고 하면서 문학을 언어 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¹⁸⁾

대부분의 언어자료들은 학습자를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어교육 그 자체를 위해 쓰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0), p. 18.

15) Yetta Goodman, “Roots of the Whole Language M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0(1989), pp. 113-127.

16) 하광호,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서울: 에디터, 1996), p. 82.

17) 이경우, 『총체적 언어-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창지사, 1996), p. 120.

18) J. Collie & S. Slater, p. 3.

여지지 않았던 문학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실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언어 학습의 자료는 실제적 언어자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실적인 언어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학 자료의 가치들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송 무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언어사용의 기교와 체험적 소재가 주는 즐거움이 학습 동기 유발을 쉽게 해 준다.
- 세련된 언어 사용법이 언어사용 감각을 길러 준다.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해석 능력을 길러 준다.
- 삶에 밀착된 내용을 담음으로써 문화이해 능력을 길러 준다.¹⁹⁾

뿐만 아니라 학습자 위주의 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데에도 문학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 교사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일 뿐, 자기가 가진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의 흥미 및 관심을 유발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환타지 문학이 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는지 설명이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 빠진 아이들의 눈을 책으로 돌리게 만든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 책이 독자들의 흥미를 온통 쏠리게 하는 대상이라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학과 언어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문학은 개인이 지닌 서로 다른 무수한 재능을 서로의 긴밀한 관계 속에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문학작품을 치밀하게 통독한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에 대해 보다 나은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보다 훌륭한 이해력과 통찰력, 관용과 연민의 눈으로 복잡다단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새롭고도 예

19) 송무 외, p. 18.

견할 수 없는 경험들의 끝없는 흐름에 대처할 기회와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²⁰⁾

문학을 영어교육에 도입하는 데에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문학이 이용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로 영어가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 자료임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영시 텍스트가 언어 교육에 주는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준다. 학생들은 시적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속의 이야기에 동화된다. 영시 텍스트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그것에 공감하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더 나아가 학습에 대한 의욕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시가 주는 흥미와 즐거움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화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는 학생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영시 텍스트는 사회상의 반영이며 문화의 주요한 양상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학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독자에게 문학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말 하고자 하는 인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와 결합시키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게 하여 문화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셋째, 언어 자료를 풍부히 제공한다. 영시 텍스트는 언어적 자료를 제공하고 어휘의 용법과 통사적 구조 및 문체 등을 통하여 언어적 지식을 확장시켜 주므로 영시 텍스트를 공부하면 모든 언어 기능이 개발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 언어의 다양성과 다양한 언어적 차이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교실에서의 상황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집단 밖의 영어 교실인데도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위한 언어에 대한 확실한 실제적 상황을 만들어 내며, 인위적인 교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²¹⁾

20) H. L. B. Moody, *Teaching of litera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Longman, 1971), pp. 136-137.

21) W. T. Littlewood, "Literary and Informational Texts in Language Teaching,"

넷째, 창조력을 개발시킨다. 작품을 많이 읽으면 학생들은 작품속의 훌륭한 문학적 기법과 사상을 통하여 언어 학습자의 창조력이 향상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을 접하게 된다면 풍부한 표현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게 된다. 즉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이것은 유용하게 작용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2. 정서 교육 자료

토픽은 문학이 인식 능력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 낼 수 있으려면 어학 능력이 최상에 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문학적 재능이 대가들의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²²⁾라고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비친다. 또한 아서(Bradford Arthur)도 인식능력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는 데에 반대 의견을 표한다. 그는 문학을 어학 교실에서 다루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문학적 체험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언어 기술 습득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데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 능력이 상위 수준에 도달해야 문학을 문학적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데, 온전한 문학적 체험이 실현 될 만한 언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미 그 작품은 그 학습자에게 언어 기능 학습의 도구로서는 효용성을 상실 한다²³⁾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문학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는 마퀴드(A. H. Marckwardt)의 주장도 일면 정당해 보인다.²⁴⁾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이 정서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반대 논거들을 통하여 적합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문학 텍스트 도입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문학적 체험을 제대로 달성

Praxis I(1976), p. 19

22) Topping, p. 97.

23) Bradford Arthur, “Reading Literature a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1968), p. 18.

24) A. H. Marckwardt, “What Literature to Teach: Principles of Selection and Class Treatment,” *English Teaching Forum*, Vol. 19(1981), p. 5.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어학 실력이 필요하다는 마퀴드의 주장은 영어 학습자의 지적, 문화적, 정서적 수준과 반응을 초보적인 단계에 두었을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은 문학 텍스트로서 단지 셰익스피어나 엘리엇과 같은 '위대한 문학(Great Literature)'만을 염두에 둔 까닭인데, 텍스트의 범위를 동시에 동요까지 포함시키면, 반대 의견의 논거가 크게 약해진다. 그리고 문학적 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연령마다 그 나름의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점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않다. 어느 작품도 그 시대 사회상을 완벽하게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문화라는 말의 정의에 관한 논란도 많으며, 영어가 세계 전역에서 제1, 또는 제2, 또는 외국어로서 사용되므로 반영되는 문화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한편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흔히 특정 제국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과 동일시하기도 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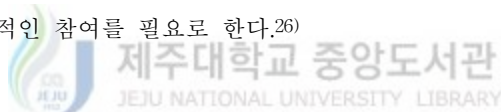
어쨌거나 영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읽는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 작품의 배경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동시에 문학은 한 특정 사회의 일원이 특정 상황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생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다루는 일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하고도 때로는 놀라운 직관을 얻게 해준다. 그러나 작품 속의 표현이 편향되었을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학생들이 그것을 비평적으로 보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텍스트 속에 포함된 문화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가정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강화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비평도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흥미는 문학작품을 읽는 즐거움이라고도

25) Brumfit, C. J. and Carter, S.,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P, 1985), p. 225.

할 수 있다.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읽을 때 학습자와 그 작품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정서적 지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즐거움은 곧 언어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과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문학적 체험”이라 할 수 있으며, 아서는 이러한 “문학적 체험”의 성격과 언어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문학을 듣고 읽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은, 문학적 경험이라 불려지는 줄거리와의 특별한 종류의 감정적이고 지적인 참여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다. 모든 문학적인 경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독자는 의식적으로 문학적 경험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다. 즉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문학적 경험은 독자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경험은 독자의 모든 지적이고 감정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²⁶⁾



문학은 단순한 언어, 문화교육을 넘어선 더 광범위한 교육적 기능을 한다. 문학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비판 능력을 길러주며, 그들의 정서적 자각을 증진시킨다. 텍스트에 대해 개별적인 반응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전통에 그 능력을 결부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일은 문학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일이므로 학습자가 받는 가장 큰 이익은 문학적 체험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데는 일반적인 독해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전제된다. 특정한 문학 작품이 갖는 문화적 가정을 인식하고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문학적 체험이다.

콜리와 슬레이터 역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문학작품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26) Arthur, p. 202.

문학작품은 인간적 참여이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독자의 인간적 참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언어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문학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관심의 초점을 외국어 체계의 기계적인 측면들을 넘어서게 할 수 있다.²⁷⁾

또한 그들은 작품을 읽어 나갈 때 독자는 점차로 자신이 보는 책에 끌려가게 되고 그 세계 속에 “거주하게(inhabit)” 되는 심리적 현상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개개의 단어나 어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이야기의 전개를 밝혀내는 것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독자는 사건이 전개되어감에 따라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자 하며, 어떤 등장인물들에게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공유한다. 이것은 허구의 세계가 읽는 사람의 전체적 인성을 그 작품 자체의 세계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인간적 참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는데 아서가 말한 “문학적 체험”과 상통하지만 문학작품이 왜 언어교육에 효과적인지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²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 작품은 결국 다른 매체가 담을 수 없는 섬세한 묘사와 구성을 통해 독자가 작중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실감나게 들여다보고 간접적인 인생 체험을 하게 한다. 그 결과 무의식적인 감정이입에 의해 작중 주인공들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에 빠져들어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고 기뻐하며, 함께 감동하거나 저항하게 되는 감정적 반응이 촉발된다. 이러한 감정촉발은 작품에 대한 흥미유발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아가 이 같은 흥미 유발은 외국 문학 작품을 외국어 학습에 활용할 때 자연스럽게 언어학습에의 동기유발로 연결된다.

영시는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 모두 영어 학습교재로서도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영시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영시는 학습자들이나 교사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과 유리되지 않은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언어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발전까지도 도모할

27) J. Collie & S. Slater, p. 226.

28) *Ibid.*, p. 226.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귀중한 영어 학습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영시는 영어 학자들이 지적하듯 영어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소리의 강약, 리듬과 음악성을 풍부하게 담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가 주기 힘든 영어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수업에서 영시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어의 교육적 이점은 다양하지만 교과외적인 것으로는 창의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수업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과 두려움을 줄이게 되어 많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동기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효용성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장점 및 가치 등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마셔(J. C. Mash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시적 텍스트 속의 압축된 표현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하여 느껴볼 수 있고, 텍스트의 리듬감 때문에 읽기 학습에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둘째, 시적 텍스트가 가진 특징인 두운, 리듬, 억양과 운율에 힘입어 듣거나 말하기 학습에 효과적이다.

셋째, 교사가 적절하게 상황만 만든다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놀이 형태로서의 쓰기 학습도 가능하다고 한다.²⁹⁾

시가 지닌 특성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암기성이다. 시의 단편들은 노래의 가사처럼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우리 내면의 귀에 계속 울려서 다른 종류의 언어입력형태가 망각된 오랜 뒤에까지도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남아 있다. 포우프(Alexander Pope)가 그의 『비평론』(*Essay on Criticism*)과 『인간론』(*Essay on Man*)을 시로 쓴 이유도 바로 이 시의 암기성을 이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오래도록 세상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9) J. C. Masher, "Poetry for Instructional Purposes: Authenticity and Aspects of Performance," *English Teaching Forum*, 20(1982), p. 18.

둘째는 시의 운율성을 들 수 있다. 시는 우리에게 “한 언어의 율동적인 심장박동으로 통하는 긴급 직통 전화”이다.³⁰⁾ 앞서 말한 암기성도 시가 지닌 소리와 강세의 규칙적인 반복 때문에 가능하다. 시의 운율성을 이용하여 영어교육에서는 영어의 리듬과 운율을 훈련하는 자료로 영시를 활용할 수 있다. 시의 운율은 시의 정서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자극해 주는 율활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시가 가진 상연성/암송 가능성이다. 기록된 말을 자연스럽게 - 특히 제창의 형식으로 - 말로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대개 지루한 문형 연습과는 달리 학습자는 집단으로 시를 낭송할 수 있으며, 이런 집단의 상연의 가능성은 개별적인 실수를 두려워하는 초기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네 번째는 시가 지닌 다의성이다. 시어는 ‘공적인’ 의미와 ‘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은 교수 활동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도 내에서는 각 개인의 해석이 모두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로써 거의 무한수의 토론이 가능해진다. 영시를 이용하여 영어교육을 할 때 영시 이해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해석이 존중되어지므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진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비범성이다. 시나 노래의 기능이 존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고양시키는 데 있으므로 하나의 특정 사안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학습자에게는 의미심장한 언어입력을 제공한다. 이 점이 다른 언어학습 자료보다 시가 돋보이는 이유이다. 언어 학습자들을 위해 일부러 지어낸 것이 아닌 진정 무언가를 의미하는 정의적이거나 인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을 하면 모두가 시인이 된다’ 는 말이 있다. 이는 시가 지닌 비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이유일 것이다.

여섯째는 시의 주제가 지닌 보편성을 들 수 있다. 어떤 언어도 시와 노래를 갖

30) A. Maley & S. Moulding, *Poem into Poem: Reading and writing poems with students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P, 1995), p. 93.

지 않은 것은 없다. 그것이 다루는 주제 - 사랑, 죽음, 자연, 어린이, 종교적 신념, 등등 - 는 모든 문화에 공통이다. 모든 언어학습자는 시가 가진 사상과 주제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진다. 이것이 시의 보편성이다. 모든 문학의 영역에 보편성이 있듯이 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시 언어가 가진 유희성이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그 언어와 함께 재미있게 놀거나 그것이 탄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에 있다. 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매체다. 영어 학습자들에게 유희성 있는 영시를 소개해 주면 영어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없앨 수 있다. 한편 시를 쓰는 일은 '오류의 용인(tolerance of error)'이 가능하기에 언어 학습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학습활동이다.³¹⁾

여덟 번째는 시가 가진 동기부여의 힘이다. 우리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는 항상 우리들에게 꿈을 주고, 삶을 누리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자극을 준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가장 순수한 시기에 있기에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강하여 시에 대한 흥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특질로서는 상호작용을 자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를 사용하면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두 사람도 전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의미 있는 생각의 교환과 토론을 위해 적절한 긴장을 만들어 낸다.

열 번째로 시의 간결성이다. 간결함의 여유를 가지고 언어자료를 음미하면서 서로간의 토론의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고 길이가 짧음으로 인해서 산문의 경우처럼 전후의 문맥 가운데서 가위질을 해야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적잖은 장점으로 보겠다.

열 한 번째로 다양한 교육 기자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적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파워 포인트, OHP, CD-Rom 등의 교육 기자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기자재는 곧 학생들에게 다양한 입력(Input)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

31) Maley, p. 109.

다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적 텍스트를 찾아 읽는 것 이상의 효과, 즉 영어로 정보를 찾는 실용적인 지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가 녹음된 듣기 자료는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시의 요소인 리듬을 익히는데 아주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의 소재의 무한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시는 언제든 어디서든 시를 짓는 사람의 경험과 정신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학 형태이므로 그 소재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철학적 명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소중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또 이를 독특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욕구에 공감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영시 자료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커다란 흥미의 원천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는 길이에 있어 일차적인 이점이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언어 학습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강세, 리듬, 소리의 유사성 등의 분야에 감각적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시는 언어교육 자료로서 많은 긍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영시 또한 영어교육 자료로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IV. 영시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방안

이 장에서는 실제로 시적 텍스트들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시적 텍스트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겠다. 그 방법으로 첫째, 언어 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시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시들을 적용할 영역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둘째, 정서 교육 자료로서 적합한 영시들을 선택하여 어떤 주제의 시가 정서 교육에 좋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시적 텍스트 활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교육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정규 수업의 보조 자료로서 짝막한 길이의 시적 텍스트의 활용이 바람직하고, 보충 수업이나 특별 활동 시간의 비정규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한편의 작품으로서의 동요, 동시, 노래, 시 등을 자료로서 이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영시를 학습에 적용할 때 학생들의 뇌리에 잠재된 어떤 걱정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영시에 대한 걱정이란 어렵고 까다로운 영시를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염려이다. 그 동안 영시에 대한 접근은 항상 그 내용 이해에 앞서 영시의 기본 요소와 작가의 생애 및 사상 그리고 시대적 조류를 이해하여야 했다. 이러한 점이 영시가 어렵고 복잡하며 마치 특정 부류의 전유물인 양 오해를 사게 한 측면이다. 이러한 관점은 영어교육을 위한 영시 지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영어 학습을 위한 영시 교육은 그 목표가 영시의 내용 이해보다는 영어 이해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즉, 영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기능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 작용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흥미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영시는 훌륭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를 처음 읽을 때 우리는 시를 해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감상과 즐거움을 위해 읽어야 한다. 학생들과 읽은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출발을 삼아야 한다. 먼저 영시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먼저 정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언어 표현을 통하여 어휘 및 문법 그리고 강세, 억양, 리듬, 발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시 교육의 목표에서 “시 작품은 가장 고도의 언어 조직이므로 영시 교육을 통하여 고도의 영어교육을 수행하며, 특히 영어의 리듬과 음조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한다.”³²⁾라고 말했듯이 고도로 세련된 영시 언어의 특성은 보다 차원 높은 영어 학습을 가능케 하며 영시에서 주를 이루는 리듬은 영시 낭송을 통하여 학습 흥미 유발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낭송함으로써 더욱 그 맛이 난다. 따라서 시의 낭송은 아직 작품의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았어도 시의 분위기를 다소나마 느낄 수 있고 그 음조의 매력이 시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어느 정도 작품을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해 시 낭송을 들음으로서 마음속에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고 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여러 번 반복 낭독함으로써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소개되는 시의 낭송은 가능하면 시인 자신의 낭독이거나, 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가 시를 충분히 이해한 후의 낭송을 녹음한 것을 들려줌으로써 먼저 그 시의 분위기와 리듬을 익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확하게 시의 운율에 익숙해 있고 잘 훈련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솔직한 정열이 담긴 교사의 목소리로 직접 학생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1. 언어교육의 활용

이제 영시 텍스트를 통하여 언어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정서 교육 자료로서의

32) 김치규, 『영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어영문학』 (1968), p. 28.

활용방안을 살펴보겠다. 앞서서도 언급 했듯이 영시 텍스트는 대상에 따라 수준에 맞는 텍스트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연구자가 근무하는 곳이 고등학교라 텍스트의 대상을 고교생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편의상 텍스트를 언어 교육 자료와 정서 교육 자료로 나누었을 뿐 따로 따로 분리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다. 우선 언어 교육은 어법, 어휘, 그리고 읽기 및 쓰기 중심으로 그 실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법

여기서는 프로스트(R. Frost)의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라는 시를 통하여 도치와 삽입, 지각동사의 용법,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의 예, 부정사의 용법 등 어법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이게 누구네 숲인지 알듯하다.

그 사람 집은 마을에 있지.

그인 모르리라. 내가 여기 서서

자기 숲에 눈 쌓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내 조랑말은 기이하게 여기리라.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농가라곤 가까운 데 없는데

연중 가장 캄캄한 이 저녁에 길을 멈췄으니.

말은 방울을 흔들며 댄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묻기라도 하듯

그밖엔 오직 가볍게 스쳐 가는

바람소리, 부드러운 눈송이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Robert Frost ;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³³⁾

33) Nina Baym, Vol. 2, p. 1103.

첫 행인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에서는 도치와 삽입에 대해서 수업이 가능하다. 문장의 전후로 보아 생략되어도 뜻이 명백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고, 생략에는 같은 어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과 관용적인 생략이 있는데, I think가 생략이 되어도 뜻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즉 삽입어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을 맞게 고쳐본다면 I think I know Whose woods these are로 되어 도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첫 행 3연에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에서는 지각 동사 see, watch의 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원래 지각동사는 목적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사용하는데 watch 뒤에 목적보어로 원형 부정사 fill이 사용되었으나 see의 경우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분사(stopping)가 사용되었다. 현재분사가 사용됨으로서 행동의 진행자체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알 수 있다.

I saw him cross the bridge.(행동완료)

I saw him crossing the bridge.(진행)

두 번째 연 첫행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and 둘째 행 “To stop without a farm house near”에서는 가목적어(it)와 진목적어(to 이하)의 예를 볼 수 있다. 그에 알맞은 예문을 몇 가지 덧붙여 설명하면 좋을 듯하다.

3연에서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의 경우와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는 부정사의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보인다. 또한 4연에서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명사나 대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한정용법으로 3연의 위 구절과 동시에 설명이 가능하다.


(2) 어휘

어휘 중심 활용의 예는 롱펠로우(H. W. Longfellow)의 「화살과 노래」 (“The Arrow and the Song”)라는 시를 통하여 동사의 형태 변화, 품사별 어휘의 다양한 의미, 분화 복수 등의 어휘력 확장을 위한 수업이 가능하다.

화살과 노래

화살 하나 공중에 쏘았네.
땅에 떨어졌으려만, 어딘지 알 수 없으라.
너무도 빨리 날아, 날아가는 화살을
눈으로 쫓아갈 수 없었네.

노래하나 공중에 띄워 보냈네.
땅에 떨어졌으려만, 어딘지 알 수 없으라.
어느 눈이 것처럼 날카롭고 강하여
날아가는 노래를 쫓아갈 수 있으라.

오랜 뒷날 한 참나무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직도 성하게 박혀 있는 화살을 보았네.
노래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벗의 마음 한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네.

I shot an arrow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so swiftly it flew, the sight
Could not follow it in its flight.

I breathed a song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who has sight so keen and strong,
That it can follow the flight of song ?

Long, long afterward, in an oak
 I found the arrow, still unbroken;
 And the song, from beginning to end,
 I found again in the heart of a friend.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Arrow and the Song)³⁴⁾

1연의 첫 행인 “I shot an arrow into the air,”에서는 동사 형태의 변화를 배울 수 있다. 이 시에 나오는 동사 형태의 변화(shot-shot-shot, fall-fell-fallen, know-knew-known, fly, can, find) 와 명사의 형태 변화(see-sight, fly-flight)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변화(swift-swiftly, keen-keenly, strong-strongly, long-long)의 예를 통해서 이해 가능하다. 부사의 일반형은 “형용사+ly”이지만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도 있다. long-오랜, 오래, fast-빠른, 빨리, early-이른, 일찍 등이다.

3연의 둘째 행인 “ I found the arrow, still unbroken;” 에서는 어휘 still을 배울 수가 있겠다. 부사 already, yet, still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며 배우게 할 수 있다. 또한 형용사로 쓰일 때의 의미(조용한, 고요한)도 설명하고 비교급 앞에서는 비교급을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럼에도, 그래도 역시’의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첫 행인 “I shot an arrow into the air,”에서 이 시에 나타난 어휘와 구문으로는 into the air(공중으로) in its flight(나는 것을) long afterward(오랜 후에) from begin to end(처음부터 끝까지)등의 공부 가능하다. 또한 air가 복수형이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분화 복수임을 추가할 수 있다. airs(건방진 태도, 젠체함)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다른 분화 복수의 예를 추가하면서 설명하면 된다.

34) 전상범 외, *English II*, 서울: 금성출판사(1999).

(3) 읽기 및 쓰기

여기서는 포우(Edgar. A. Poe)의 「애너벨 리」(“Annabel Lee”)라는 시를 통하여 읽기 활동, 듣기 활동, 질문 및 답변, 산문으로 다시 쓰기를 통하여 읽기 및 쓰기 활동 중심의 수업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애너벨 리

아주 아주 오래 전

바닷가 한 왕국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애너벨 리라면, 당신도 알지 몰라요.

이 소녀는 날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는 것밖엔

또한 생각은 아무 것도 없이 살았어요.

나도 어렸고 그 애도 어렸죠.

바닷가 이 왕국에서.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랑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나와 애너벨 리는.

하늘의 날개달린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샘할 만한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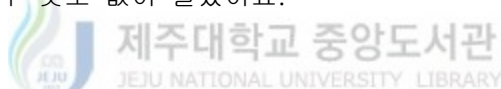
그 때문에 오래 전, 바닷가 이 왕국에서

한 차례 바람이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아름다운 애너벨 리를

싸늘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곤 그녀의 지체 높은 친척들이 와서



그녀를 내 곁에서 데려가
바닷가 이 왕국
무덤에 가뒀 버렸죠.

천국에서 우리 반만큼도 행복하지 못한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요! -- 그 때문이었죠 (바닷가 이 왕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밤에 구름 속에서 한 차례 바람이 일어
나의 애너벨 리를 싸늘하게 죽여 버린 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우리보다 현명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 밑의 악마들도
내 영혼과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영혼을
떼어놓지 못해요.

달빛이 빛날 때마다 난 언제나 꿈을 꾸거든요,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꿈을.
별들이 뜰 때마다 나는 느껴요,
애너벨 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내 사랑,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의
곁에 눕습니다. 그 곳 바닷가 무덤,
파도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 속에서.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
I and my Annabel Lee --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in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e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 --

Yes! — that wa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Chilling and killing my Annabel Lee.

But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who were older than we --
Of many far wiser than we --
And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under the sea,
Can ever dissever my soul from the soul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so, all the night-tide, I lie down by the side
Of my darling, -- my darling --, my life and my bride,
In her sepulchre there by the sea --
In her tomb by the sounding sea.

(Edgar A. Poe ; Annabel Lee)³⁵⁾

① 낭송

이 시는 세상을 떠난 옛 연인을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이다.

35) Nina Baym, Vol. 1, P. 1375.

다른 시와는 달리 분량이 많아 교실 수업에서는 두 시간의 과정으로 보면 타당하다.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사랑이란 어떤 감정인가,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발문을 통하여 동기 유발을 시키고, 낭송 테잎을 통하여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 텍스트를 조용히 읽게 하고,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되,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게 하면서 읽기 이해도를 점검하면 좋겠다. 다음 보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기>

- 이 시는 누구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답변 예; 어린 소년 소녀의 사랑)
- 화자는 소년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
- 이 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슬픈, 열렬한 사랑, 미친 듯한, 죽음을 초월한 사랑)
- 시의 배경은 사랑의 분위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이국적인, 외롭고 쓸쓸한, 이국적인 분위기)
- 어떤 것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까? (바닷가, 무덤, 밤 등)
- 이 시는 현실의 이야기 같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느끼게 합니까?
(시간 : 먼 먼 옛날 장소, 장소 : 바닷가 왕국, 기타: 천사, 악마, 돌무덤 등)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다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읽게 한 뒤 좀 더 세부 사항을 질문 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시 내용 파악을 마무리하게 할 수도 있다.

<보기 2>

- 이 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제 : 죽음을 초월한 사랑)
- 이 시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있습니까?
(바다는 영원히 철썩거린다. 사랑의 영원성 또는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생명과 죽음의 영원성)
- 이 시의 리듬은 바다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 인상적인 시 구절을 찾아서 적고 그것을 외워 보면 어떨까요?

② 쓰기(Rewriting) - 시를 산문으로 다시 쓰기

아래의 견본과 같이 시의 줄거리를 산문으로 재구성한 후 한 문장을 비우거나 문장의 주어만 준 뒤 문장을 비워두고 직접 쓰게 한다.

● 인쇄문 견본

1. Once upon a time, there were a boy and a girl who loved each other.
2. Their love _____ .
3. There beings so envied their love that they let the girl die.
4. And the relatives _____ .
5. But their love was so strong and pure that even her death couldn't destroy it.
6. Even now, when the moon and stars are bright, _____ .

※ 빈칸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의 예

2. was so pure that it was envied by celestial beings from the heavens.
4. locked her away in a tomb near the ocean.
6. He can feel her near him and knows their souls shall remain together forever.

2. 정서교육의 활용

우리는 영시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부딪히게 될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자극 받는다. 학생들은 텍스트 속의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의 체계적인 정립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정서 교육에 적합한 가치들을 삶의 지혜, 언어 예절의 중요성, 상상력과 직관력, 순수성, 적극적 용기와 실천력, 그리고 인생의 의미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주제들은 정서교육을 위해 적어도 필요한 가치관들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에 적합한 영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정서교육의 활용의 예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정서교육은 읽기 및 이해 활동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이끌어 낼 수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1단계는 텍스트 전체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한 두 종류의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는 단계로 시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을, 2단계는 1단계의 질문을 통해 텍스트의 기본 이해가 확인되면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3단계는 내용 이해에 관한 기본 설명 및 이해를 시킨 뒤에 주제 및 교훈, 내용을 통한 자신의 삶과 연관된 토론을 통하여 정서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단계이다. 각각의 시를 통하여 그 단계별 활용방법을 살펴보겠다.

(1) 삶의 지혜

앞에서 언급한 프로스트(R. Frost)의 시,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를 예로 들어 보자.

1단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며 다양한 대답을 수용한다.

Q.1.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

Q.2. 화자는 왜 집에 가지 않고 있으며 말은 왜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기는가?

2단계에서는 화자는 어른인가?, 남자인가?, 어느 계절인가?, 화자는 어디에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학생의 이해를 얻어낸다.

1, 2단계의 답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아름답고 어둡고 깊은 숲의 모양을 보여 준다. 화자는 숲에 머물면서 그 고요한 숲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를 원하지만 여행

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캄캄한 밤에 어딘가 다녀오던 화자는 문득 썰매를 멈춘다. 눈 내리는 고요한 숲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이다. 눈송이들은 마치 부드러운 깃털처럼 내려 쌓이고, 화자는 모든 것을 잊고 가만히 그 안에 드러누워 잠들고 싶다. 하지만 마을에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화자는 다시 길을 떠난다.

3단계로 삶의 지혜를 주는 가치관을 형성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상의 소박한 체험을 아무런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담담한 명상적 어조로 서술하면서 매우 커다란 시적 감동을 전해 준다.

삶은 하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시 속의 화자는 두 갈래 길을 만났지만 너희들 앞에는 수십 갈래, 수백 갈래 길이 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이 적게 다녀도 정말로 가치 있고 진정 너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길을 택해라.” 꿈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앞만 보고 가라는 교훈을 가슴 속에 되새기게 할 수 있다.



(2) 언어 예절

역시 앞에서 언급한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의 시 「화살과 노래」 (“The Arrow and the Song”)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1단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며 대답을 다양하게 수용한다.

Q.1. 어느 시절의 노래인가 ?

Q.2. 화살과 노래는 결국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가?

2단계에서는 화살을 왜 쫓을 수 없었나 ?, 노래는 왜 쫓을 수 없었나? 화살과 노래는 왜 오랜 후에야 발견 되었을까 ? 등의 질문으로 학생의 이해를 얻어낸다.

1, 2단계의 답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숲 속에 쏘아 올린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하늘을 향해 부른 노래가 누구에게 들려 졌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화살은 참나무에,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노래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과 남아 있는 발자취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시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서정적인

전원 풍경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3단계로 여기서는 단지 서정적 전원 풍경에서 방향을 바꾸어 언어예술의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인식시킬 수 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너무 옷자라 불편하거나 쓸모없게 된 나무가 있을 경우 톱으로 잘라 버리는 게 아니라 온 부락민들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한다. “넌 살 가치가 없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면 정말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무심히 내뱉은 말이 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꽃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말 한마디에 힘입어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 시를 통하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로이 가슴에 새기게 할 수 있다.

(3) 상상력과 직관

인간의 상상력을, 욕망과 이해관계로 영긴 삶의 현재적 조건들을 뚫고 근원을 파헤치려는 의욕이고, 결코 왜곡될 수 없는 실체로서의 진실과 교섭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해 본다면 이 의욕과 능력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설계하는 인간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지도하는 능력과 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교육은 상상력 위에 형성되는 인간행위이다. 교육은 배우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며, 알아야 될 것을 제시하는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리저리 해볼 수 있고 세계를 읽을 수 있는 방법적 지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력의 교육이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 상상력은 아주 중요한 정서교육 주제로 삼아도 좋다고 본다.

여기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의 시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Who Has Seen the Wind ?”)는 상상력과 직관에 불을 지피는 주제로 적절하다고 본다.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나도 당신도 보지 못했어요

허나 나뭇잎 살랑거릴 때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당신도 나도 보지 못했어요

허나 나무들 고개 숙일 때

그 곁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you nor I:

But when the trees bow down their heads

The wind is passing by.

(Christina Rossetti ; Who Has Seen the Wind?)³⁶⁾

1, 2단계로 대답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Q.1. 화자는 바람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그 이유는 ?

Q.2. 나뭇잎과 나무는 언제 바람을 느꼈을까 ?

36) 민재식 외, *English for everyone*, (서울: 시사영어사, 1995).

1, 2단계의 답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짧지만 묘한 흥취가 있는 시다. 나름대로 위트를 가미하여 바람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우리의 시각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려고 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 감각으로 시를 저절로 쉽게 읽게 한다. 바람이라는 소재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자신도 타인도 보지 못할 때 자연은 나뭇잎 사이로 그리고 나무들 고개 숙일 때 지난다는 평범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3단계 과정으로는 “상상력을 가진 이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보고, 무관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 더 밝아진다. 그러면서 만물이 가진 조화의 비밀을 알아 볼 수 있어 세상과 삶을 더 아름답게 볼 줄 안다. 그로인하여 정신은 그만큼 풍부해지고 마음은 그만큼 행복해진다. 이 상상력을 시인의 눈과 마음에서 배울 수 있다. 나아가 갈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이 놓여 있고 그 가능성의 바탕은 상상력이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인간의 시각으로 확대하여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가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관련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놀랍고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요즘처럼 겉만 보고 믿고 판단하는 우리의 가벼움을 바람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4) 순수한 마음

다음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로 잘 알려진 작가가 쓴 동시이다.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시 「엄마와 하느님」 (“Ma and God”)이라는 시를 통하여 순수성을 자극하는 정서교육 활용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엄마와 하나님

하느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 "포크를 써라" 하세요.
하느님이 목소리를 주셨는데 엄마 "소리 지르지 마라" 하시고요.
엄마 브로콜리 먹어라, 시리얼 먹어라, 당근 먹어라 하시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매이플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입맛을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 "손수건을 써라" 하세요.
하느님이 물웅덩이를 주셨는데 엄마 "물장 튀기지 마라" 하시고요.
엄마 "조용히 해. 아빠 주무신다" 하시지만
하느님은 찌그러뜨리며 놀라고 우리에게 쓰레기통 뚜껑을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 "장갑을 꺼라." 하세요.
하느님이 빗방울을 주셨는데 엄마 "비 맞으면 안 된다." 하시고요
엄마 조심해라, 모르는 개한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하시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귀여워하라고 사랑스런 개들을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 "가서 씻어라." 하세요.
하지만 하느님은 석탄통과 지저분하고 멋진 몸뚱이를 주셨잖아요.
전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가 틀렸던가 하느님이 틀렸던가 둘 중 하나예요

God gave us fingers---Ma says, "Use your fork."
God gave us voices---Ma says, "Don't scream."
Ma says eat broccoli, cereal and carrots.
But God gave us tasteys for maple ice cream.

God gave us fingers---Ma says, "Use your hanky."
God gave us puddles---Ma says, "Don't splash."

Ma says, "Be quiet, your father is sleeping."
But God gave us garbage can covers to crash.

God gave us fingers---Ma says, "Put your gloves on."
God gave us raindrops---Ma says, "Don't get wet."
Ma says be careful, and don't get too near to
Those strange lovely dogs that God gave us to pet.

God gave us fingers---Ma says, "Go wash 'em."
But God gave us coal bins and nice dirty bodies.
And I ain't too smart, but there's one thing for certain---
Either Ma's wrong or else God is.

(Shel Silverstein ; Ma and God)³⁷⁾



1, 2단계로 다양한 대답을 유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 Q.1. 화자는 누구인가 ?
- Q.2. 하느님이 하라고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 ?
- Q.3. 화자는 엄마와 하느님 중 누가 틀렸다고 보는가?

질문의 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바로 3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설명 배경으로 “천진한 아이의 시점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꼬집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효율적인 것만을 따지는 어른들, 자유로운 창의력을 짓누르고 정형만을 고집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무엇이든 빠르고 크고 편리한 것만 좇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신이 내려 주신 자연과 인간의 모습에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서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37) 조선일보,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2004년 8월 18일.

(5) 적극적 용기와 실천력

삶에는 항상 어려운 고비가 닥쳐온다. 그때마다 힘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알맞은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의 유명한 시 「인생찬가」(“A Psalm of Life”)를 그 예로 살펴보자.

인생 찬가

구슬픈 가락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망한 꿈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엄숙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표는 아니다.(...)
아무리 즐겁게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엇이든 하자.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부분)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Life is but an empty dream!(...)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Trust no future, howe'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act in the living present!(...)
Let us, then, be up and doing,
With a heart for any fate;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Learn to labor and to wait. (부분)

(Henry Wadsworth Longfellow ; A Psalm of Life)³⁸⁾

1, 2단계로 다양한 대답을 유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Q.1.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구와 그 이유는 ?

Q.2. 화자는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

Q.3. 시를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

위와 같은 질문 및 답변 그리고 타인의 견해를 공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3단계로 전이가 가능하다. 3단계의 정서교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살기를 촉구하는 시이다. 불퇴전의 용기를 불어넣는 시 귀로 하여 학생들에게 허물어지지 않는 굳건한 자세를 유지하고 살라고 권할 수 있다. 무력감과 권태에 빠져 잠들어 버린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다. 인생은 어차피 허망한 것이라고 포기하는 허무주의, 운명은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패배주의, 과거의 영화에 연연하여 현재를 보지 못하는 과거주의를 모두 털어 버리고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갖고 일어나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6) 인생의 의미

오래 살아 행복한 사람들과 짧지만 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의 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추구해봄으로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정서교육을 할 수가 있다. 벤 존슨(Ben Jonson)의 시 「고귀한 자연」(“The Noble Nature”)를 예로 들 수 있다.

38) Nina Baym, Vol. 2, P. 1319.

고귀한 자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무가 크게만 자라는 것과 다르다.
참나무가 삼백 년 동안이나 오래 서 있다가
결국 앞도 피우지 못하고 통나무로 쓰러지느니
하루만 피었다 지는
오월의 백합이 훨씬 더 아름답다.
비록 밤새 시들어 죽는다 해도
그것은 빛의 화초요 꽃이었으니.
작으면 작은 대로의 아름다움을 보면
조금씩이라도 인생은 완벽해지지 않을까.

It is not growing like a tree
In bulk, doth make man better be;
Or standing long an oak, three hundred year,
To fall a log at last, dry, bald, and sear:
A lily of a day
Is fairer far in May,
Although it fall and die that night,--
It was the plant and flower of Light.
In small proportions we just beauties see;
And in short measures life may perfect be.

(Ben Jonson ; The Noble Nature)³⁹⁾

1, 2단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다양한 대답을 유도한다.

39) 조선일보,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2004년 11월 03일.

- Q.1. 보다 나은 사람과 삼백년 된 삼나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
- Q.2. 하루만 피었다 진 백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 Q.3. 화자는 결국 완벽한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 Q.4. 화자의 견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

위와 같은 질문 및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3단계로 전이가 가능하다. 3단계의 정서교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인생을 300년을 살아도 그저 버릇처럼 무덤덤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빛을 받으며 강렬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시인은 말한다. 무조건 육신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세상에서, 시인은 영혼의 힘을 말하고 있다. 보잘것없이 작고 생명이 짧아도 영혼이 빛을 발하고 아름다우면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 시인이 노래하듯 참나무와 백합의 차이는 삶의 양과 삶의 질의 차이이며, 인간적인 위대함과 영혼의 위대함의 차이일 것으로 본다. 인간적으로는 왜소할지 모르나 그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인간적 삶에 집착하지 않고 신이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 품위 있는 죽음이 아닐까?”

지금까지 영시 텍스트를 통하여 언어교육, 그리고 정서 교육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제한 된 시간 속에서 시를 가지고 언어교육과 정서교육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먼저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해가 쉬운 시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복잡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적 교양이 없어도 학생들의 능력으로 이해가 가능하던지 아니면 교사의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좋겠다. 시적 텍스트를 이용한 수업을 하려면 교사는 그 텍스트의 사용 목적을 잘 알고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영시 텍스트의 이점은 흥미 유발을 통하여 언어교육 및 정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교사는 이 흥미의 요소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어야 영시 텍스트를 이용한 수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V. 결 론

시는 다른 문학 장르에는 없는 독특한 리듬과 음악적 소리를 서로 연관지으며 압축된 언어로 심층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사전적 의미와 의사소통 차원을 넘어선 언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수업 매체이다. 문맥과 과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이 장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중·고교 교실에서 시를 지도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동안 문학, 특히 시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정서의 토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정서 교육과 언어 감각 계발을 위해 영시 교육은 어문학 교육에서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과과정에서 거의 무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기본적 교양 및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속에서 다루어지는 영시 지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와 교육 환경에서는 영시를 가르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 입시와 다소 관련이 적음에 따른 교사의 수업 회피, 시가 어렵다는 고정관념,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 등이 이 한계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영시가 실려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학습자료로 보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중·고교 영어 교과서에 실린 시의 권당 평균 편수는 0.9편이고 시가 한편도 실려 있지 않은 교과서는 총 77권 가운데 33권이거나 된다⁴⁰⁾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시가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40) 정윤범, p. 24.

더구나 정규 단원에 속해 있지 않고 속지에 실려 있거나 앞 혹은 끝 부분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영시를 배우지 않고 넘어가도 학생이나 교사 자신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

이로 볼 때 산문에 비한다면 영시가 너무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어느 교과서에는 1편의 시도 수록치 않은 것도 있다. 교재 구성에 있어서 정서 교육 측면의 강조가 교육 인적 자원부의 교육과정 외국어 지도목표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시 교육의 교과는 정서 함양 뿐 아니라, 어학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시 선택과 수록에 있어 학습자의 지적 발달이나 정서적 경험, 그리고 어학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충실한 검토와 양적인 증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들이 영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의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용 지도서 제작에 있어 영시 부분이 경시 혹은 아예 없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교육 지침서가 제작되어 교사들이 영시를 가르치는데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시 지도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밀도 있는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치열한 대학입시 준비만 목표를 삼을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시 교육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교까지 학원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청소년들의 매마른 영혼에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는 영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교사들은 문학적 특질이 두드러진 시 장르의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고 영시 교육 자료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시를 이용한 수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시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교과서의 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른 산문 텍스트처럼 교과서의 단원에 많이 삽입된다면 본격적으로 시가 가르쳐 질 수 있을 것이다. 시 텍스트가

영어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단원에 많은 시가 실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 해 보아야 한다.

영시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일이다. 다양한 영시 자료 중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수준에 적합하고 교사 자신이 목적인 학습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 면에서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시를 영어교육에 응용하여 수업 지도를 하고자 할 때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수준, 언어의 숙달도, 취향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택한다면, 학생들은 일반 학습자료와는 다른 시적 텍스트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의 기대치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영시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시를 즐기기 위한 흥미 유발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시 수업에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업을 할 때, 교사와 학생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다. 시적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라는 성격 때문에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 훈련자료로서 적합한 것이다. 즉 시적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수업이다. 영시 텍스트는 학생의 의견과 느낌을 유발하고, 표현하게 하는 요소를 가진 텍스트이다. 따라서 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길을 안내 해주는 안내자, 찾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암기 위주 학습과 온갖 사회악으로 질식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시를 통한 교육은 정서 순환 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자료를 수준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교수법도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에도 아주 편리하다. 열성적인 교사, 적절한 영시 교재, 그리고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영어 교실에서 상호 협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영시를 통한 영어교육이라는 목표도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어 지도를 위해 영시가 필요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영시지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윤정. 「사랑의 영시를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영정. 「고등학교 영시교육의 문제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김충배, 신명신. 『영어의 제 문제』, 서울: 한신출판사, 1988.
- 김치규. 『영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어영문학』, 1968.
-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부고시제1997-15호[별책14], 1997.
- 민재식 외. *English for everyone*, 서울: 시사영어사, 1995.
- 박용관. 「영시를 활용한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배두분.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송무 외. 『시적 텍스트를 이용한 영어교육』, 서울: 한신문화사, 1998.
- 안경희. 「고등학교 공통 영어 교과서에 실린 영시 분석과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유희자. 「영시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이경우. 『총체적 언어-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창지사, 1996.
- 이수정. 「영시 교육의 실천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이재승.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효과적인 영시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이현화. 「영시 텍스트를 통한 영어교육의 활성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nglish II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전상범 외. *English II*, 서울: 금성출판사, 1999.
- 조선일보.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2004년 8월 18일.

- 정미경. 「중·고교생을 위한 영시교육방법 연구: 로벳 프로스트(R. Frost) 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정운범. 「영시를 통한 영어교육: 한국 중고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7.
- 최은미.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시지도 방안: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하광호, 『영어의 바다에 빠트려라』, 서울: 에디터. 1995.
-----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서울: 에디터. 1996.
-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RR 96-V 『외국의 교과교육연구 실태조사연구』, 1998.
- 허선구. 「영어학습에서의 영시교육의 효용성」,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Arthur, B. “Reading Literature a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Vol. 18, 1968.
- Baird, A. “Literature Overseas: The Question of Linguistic Competence,” *ELTJ.*, 23. 3, 1969.
- Baym, Nina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Vol. 1,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9.
-----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Vol. 2,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9.
- Brumfit, C. J. and Carter, S.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P, 1985.
- Collie, J. & Slater, S. *Literature in the Language Ability in th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Duff, A. & Maley, A. *The Inward Ear: 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P, 1994.

- Köller W. *Eing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박용삼 역 ,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0.
- Lazar, G.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 “Exploring Literary Texts with the language Learner,” *TESOL Quarterly*, 30.4, 1996.
- Littlewood, W. T. “Literary and Informational Texts in Language teaching,” *Praxis 1*, 1976.
- Marckwardt, A. “What literature to teach: Principles of selection and lass treatment,” *English Teaching Forum*, Vol. 19. 1981.
- Maley, A. & Moulding, S. *Poem into Poem: Reading and writing poems with students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Masher J. C. “Poetry for Instructional Purposes: Authenticity and Aspects of Performance,” *English Teaching Forum*, 20. 1, 1982.
- Mckay, S.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 1982.
- Povey, J. F. “Literature in TESOL Program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TESOL Quarterly*, 1. 2, 1972.
- Topping, D. M. “Linguistics or Literature: An Approach to Language,” *TESOL Quartely*, 2. 2, 1968.

<Abstract>

The Applicability of English Poems to English Class

Cho, Won Gil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 D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great utility of English-poem text in English edu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English poetry makes English education more successful, as there were huge changes in education community that were brought about by the recent introduc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creativity in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nglish-poem text were discussed in terms of language education and emotional education. It's described that as a language system, English poetry is one of good learning materials to enhance verbal ability, and that as an emotional communication system, English poetry also is one of effective learning materials to step up aesthetic and emotional development. Next, the utility of English-poem text was explained. After its adequacy for language education and emotional education was discussed, its overall applicability as teaching materials was described. And finally, how to apply English-poem text to school education was handled. High school students were taught by using English-poem text to see if it's applicable to language education in each area, and its usability for emotional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was explored as well.

The efforts by this study to look into the educational value and authentic applicability of English-poem text are expected to inject more life into English-poetry instruction that still exists for form's sake only. The use of English poetry makes it easier to replace teacher-led, uniform, expository, grammar-based, and translation-centered instruction with student-centered creative one of discussion type, and that also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furthering the creativity and understanding of learners.

The excessive emphasis of college admission, rote learning and all sorts of social ills put a heavy strain on adolescents, and under the circumstances, English-poetry education is very meaningful in view of emotion. If there are collaborative, active interaction among a dedicated teacher, appropriate English-poem textbook and students in class, English education will produce truly meaningful results. Whether or not English-poetry class is necessary for English edu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concern to be discussed. Instead, future research efforts should focus on determining who needs English-poetry education and when, where and how it should be conducted.

